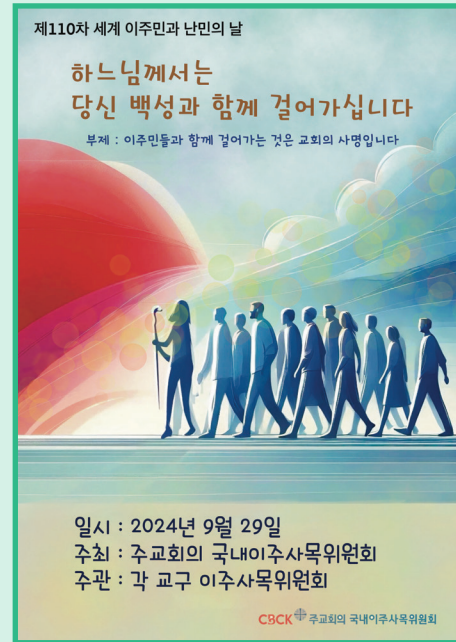


■ 나해·제2291호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4년 9월 29일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포스터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03 사제 단상
아버지 신부님처럼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⁶

05 담화 요약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야고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강재원 미카엘 신부
임당동 본당 주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면 가까운 미래의 제 모습은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저는 팔·다리는 물론 성하게 남아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매섭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이 섬뜩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41절에 언급하고 있는 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죄와 대응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마태오 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왼쪽에 있는 자들의 죄목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죄,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은 죄, 나그네였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주지 않은 죄.’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은 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죄는 나 혼자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존재한다고 해서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 이들에게 죄짓게 하는 자’ 는 직역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죄의 결과에 주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이면의 뜻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일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80항)



아버지 신부님처럼



신 학교에 입학할 때 추천서를 써주신 신부님을 보통 ‘아버지 신부님’ 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사제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제 아버지 신부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가 10살 되던 무렵에 제가 다니던 성당에 부임하셨고, 그 성당에 무려 10년을 계셨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꼬맹이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까지 보시고서 그 성당을 떠나셨지요. 어렸을 적 제가 복사를 서면서 옆에서 뵈었던 신부님은, 다소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자상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사 중에 해설자나 독서자, 복사가 실수를 하면 날카로운 눈으로 찌려보셔서 엄청 무서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신입 복사이던 제가 월요일 새벽 복사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선배 복사가 함께 서면서 저를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늦잠을 잤는지 그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뜰이나 떨리는데 더욱 긴장하면서 복사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위에 있는 초에 불을 켜려고 성냥에 불을 붙였는데, 손이 너무 뜨거워서 그만 성냥불을 성냥통 안으로 떨어뜨리고 말았고, 마침 그 안에 있던 많은 성냥에 불이 붙어서 확 불길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제의를 입고 계시던 신부님께서 바로 불이 난 성냥통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시고는, 황급히 발로 밟아서 그 불을 끄셨습니다.

미사 시작 시간이 되었는데도 신부님은 입당을 안 하시고 제의방 안에서는 타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교우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사제가 복사를 앞세우고 입당하시는데.... 아뿔싸! 신부님께서 앞머리가 갈색으로 변한 복사 아이와 함께 연기를 뚫고 입당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무서운 신부님이셨기에 저는 미사 시간 동안 복사 서는 내내 ‘아, 이제는 죽었구나! 앞으로 복사도 못 서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복사 서는 중에는 더욱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미사가 끝나고 제의방으로 퇴장해서 신부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웬일인지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하고 물으시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죠.

만일 그날 신부님께 야단을 맞았다면, 혹여 복사단에서 잘렸다면 아마 저는 창피해서 더 이상 성당에 다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었다면 지금쯤 ‘신부’가 아닌 ‘신랑’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품어주시는 미소로 인해서, 아직까지 제가 사제로 별 탈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 신부님의 그러한 마음과 미소를 간직한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실 신부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바치기

페테르 파울 루벤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²⁶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사도신경을 바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느님이신 분께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부터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에서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로 요약하기도 하는, **하느님의 어머니, 원죄 없으신 잉태(무염시태), 평생 동정, 승천(몽소승천)** 교리와 같이 마리아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믿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87항).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은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으며 이 파견에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인간의 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바라셨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88항).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준비하셨으며 이를 위해 한 인간 어머니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 마리아**는 자유로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자신의 소명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도되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이 마리아의 잉태 순간부터 이미 주어져** 그분께서는 여느 인간들과는 달리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91항).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잉태이며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의 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리아가 동정으로 어머니가 되었다**는 신앙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잉태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순간은 물론 **평생토록 동정**이었음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99항).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을 들어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동정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의 아들들(야고보와 요셉, 마태 13,55; 28,1)이거나, 구약성경의 표현 방식대로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성부께서는 다른 모든 창조된 인간들보다 더 온갖 영적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방 교부들은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거룩한 이”**라고 불렀으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지상에 남아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여느 인간과 달리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믿음 또한 앞서 살펴본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이 지닌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느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기에 하느님께서 잉태의 첫 순간부터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리아께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분이 낳은 참 인간 예수께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210~220쪽, 484~511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 담화 원문 보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인권 유린, 기후 변화, 빈곤 등 다양한 문제와 위기로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마주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가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이주민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사회적 여론에는 환영과 우려의 다소 상반된 시각이 공존합니다.

‘이주 현상’에 대한 혼재된 인식으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 문제에 대한 인식은 주로 경제, 정치, 그리고 대중 논리 안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는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합니다. 선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만이 우선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논리 안에서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먼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이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 곧 교회의 고유한 순례 본성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교회현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본성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4항 참조).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체험을 통하여 더욱 심화된 복음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 체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복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선포를 통하여 이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며, 선주민들에게는 이주민을 향한 이해와 형제애를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화와 선교는 이주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미 목적지에 이르러 울타리를 쌓고 정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순례(이주) 공동체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 안에서 교회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떠남’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 안에서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에서부터 언제든지 교회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관습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력은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특성입니다. 교회는 인종과 민족, 문화, 언어 차이를 넘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만남은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35절에 나오는 “나그네”는 곧 ‘이주민과 난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존중과 환대 그리고 보호는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국적이 서로 다른 이민자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도 기꺼이 봉사할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이기적 문화를 이겨 내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함께 노력합시다.

전 세계 지역 교회가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하는 이때에,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려는 교회의 노력이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징표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성골롬반외방선교수도회 설립100주년
9. 29.(주일)

교구 성직자 추념의 날
10. 9.(수)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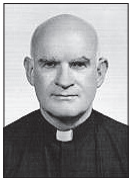
9. 29.(주일) 미카엘
정기원·강재원 신부

9. 29.(주일) 가브리엘
김명식·정원일·박명수·김찬우 신부

9. 29.(주일) 라파엘
김동훈 신부

10. 4.(금) 프란치스코
현광섭·최창덕·장윤수·이재현 신부

임(J.Lynch)요한 신부 29주기



생년월일 : 1926. 10. 22.
서 품 일 : 1951. 12. 21.
선 종 일 : 1995. 10. 5.

천신기 요한 세례자 신부 21주기



생년월일 : 1934. 8. 7.
서 품 일 : 1961. 3. 18.
선 종 일 : 2003. 10. 6.

본 당 알 림

주교좌 죽림동 성당 "음악피정"

10. 3.(목) 11:00~13:30

강사: 고영민 안드레아, 손현희 소화데레사 부부
☎ 010-7559-0030

성모님께 자신을 바치는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10. 4.(금) 19:30, 거두리 성당

연주: 임경희 글라라/첼로 찬조: 윤여훈 사비노
☎ 010-6218-2273 문의 임경희 글라라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창조시기 폐막 미사

10. 4.(금) 19시, 주교좌 죽림동 성당

묵주기도 피정

10. 5.(토)~6.(주일) 가톨릭회관

9월 예비 신학생 모임

9. 29.(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제55차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

9. 30.(월) 19시, 포천 성당

주례: 이승구 토마스 신부(정평위 위원)

강의: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봉평 주임)

주제: 새로운 탈출(이주사목)

갯세마니 피정의 집 여성 관리장 채용

업무: 객실 관리 및 약간의 컴퓨터 업무

자격: 40~65세 여성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제출처: 인제군 남면 빙어마을길 196 갯세마니

피정의 집/마감: 10. 10.(목) 면접일자 추후 알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자매님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033-461-4243

떼제기도(Taizé)

10. 1.(화)부터 매주 (화) 20:30, 교구청 3

층 경당 / 누구나 참여 가능

찬양, 말씀, 침묵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

☎ 010-5540-5551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0. 8.(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성령새신 금요기도회

10. 4.(금) 19~23시, 윤교동소성당

강사: 정혜숙 셀레나(수원교구)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윤교도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10월 카나 혼인 강좌

10. 19.(토) 18:30, 입암 성당,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교육

10. 13.(주일) 14~17시, 교구청 대회의실

대상: 현 그룹봉사자와 그룹봉사를 희망하는자

준비물: 도서 'YOUCAT', 미사 준비 (토요 주

일 미사 있습니다)

☎ 033-240-6076 춘천청년성서모임 담당

가톨릭회관 미사 안내

평일 미사: 월·화·목 8:30, 수 19:30

주일 미사: 17시 / 미사는 회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사 전례와 반주 봉사

자 모집합니다. ☎ 033-245-7300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0. 13.(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춘천교구 가톨릭 전례합창단

노부스칸투스 단원 모집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

해주세요. ☎ 010-6380-3855



화현 이벽 성지 북콘서트

10. 5.(토) 14시, 화현 이벽 성지 (경기도 포천)

출연: 황보윤(소설 '광암이벽' 작가), 고봉연 요

셉 신부 / 선착순 사전 신청 / 참가비 무료

☎ 031-531-2234 문의

010-7286-7724 (문자만 가능)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바치는 묵주

기도 100단 봉헌

10. 4.(금) 19시, 화현 이벽 성지

묵주기도 후 미사를 봉헌합니다.

☎ 031-531-2234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위치: 신관 지하 1층 / 미사: 매 (토) 14시,

신관 5층 2세미나실 ☎ 033-641-8388

신 영 측 기 사 (서울)

측량기, 광파기, GPS
데오도라이트, 레벨

☎ 02-2619-4455

☎ 010-6245-3450

고한용 요셉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인 준 시 설

갈바리노인복지센터 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가사 및 취사, 말벗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33-644-3477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및 기타상담 지원
개인, 부부, 가족 갈등 상담 (9~18시)
☎ 033-257-4687 www.cchanlife.com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 학업, 또래관계, 스마트폰 과의존 등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부모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 부모, 지도자
운영: 월~금 9~18시, 토 9~17시, 연중/대면
☎ 033-256-2000/250-1420 이숙재 상담원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대상: 등록장애인 / 기간: 연중수시 / 만18
세이상 / 인원 00명 ☎ 033-261-711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일 반 알 림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모집기간: 9. 9.(월)~10. 2.(수)
☎ 054-851-3021~2 입학문의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10. 23. 발칸 3개국 메추고리에 13일 (550만원)
1. 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550만원)
1. 12. 시칠리아 몰타 10일 (315만원)
1. 17. 이탈리아 (히년 전대사) 12일 (550만원)
3. 10.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13일 (97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출산축하금 지원 안내◆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가톨릭춘천신협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지원금액 :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본당 사무실 또는
신협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갈바리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말기암 환자분들을 위해 무료 간병인 서비스
☎ 033-644-4992

보금자리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학습지도(영어/수학 등), 음악지도
(기타, 드럼 등) ☎ 033-244-511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수녀)
10. 18.(금)~20.(주일)/ 11. 15.(금)~17.(주
일)/ 12. 13.(금)~15.(주일) 2박 3일 / 20만원
장소: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031-321-9054,9060/010-4154-0885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10. 21.(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카톨릭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원서접수(1차): 9. 30.~10. 10./전형일: 10. 19.(토)
☎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2. 3.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 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순례 및 명소 탐방(12일) 545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10. 11.(금)~13.(주일)
성경완독: 11. 1.(금)~9.(토)/12. 6.(금)~14.(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속초 나드리 여행사

일본 히토리, 상고도, 나가사키 10/28
날짜확정 4박 5일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미
☎ 010-5373-8181 어일훈·느헤미야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이보람·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글라라·김길영·마르티노

타파웨어 추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효주아네스·홍승후·젼마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듬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철성·베드로·이봉자·벨라데타